

걸치레 계절행사에 마침표를

유경환

시인 ·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아동문학은 이 땅에서 아직도 계절문학인가. 우리 실정에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년 열두 달 속의 한 달 5월에, 어린이를 내세워 행사를 벌여온 우리나라 문화의 한 단면이다. 5월에 어린이에게 책읽기를 권했던 것은 호롱불 시절의 유산이다. 추위와 어둠이 물러가고 따뜻한 밝음이 초록과 함께 다가오는 5월은 어린이에게 가장 자연친화적인 한 달이었다.

가버린 칼날 바람과 다가오는 무더위 그 틈새의 계절에 '개벽'이 등불을 밝혔던 방정환 시대가 있었다. 그것은 이미 1백년 전이다. 호롱불 시절은 아득히 잊혀졌고 그 뒷이야기만 동화 속에 남아 있다. 하지만 껍질을 벗지 못한 우리나라 문화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아직도 5월 한 달의 행사문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아동문학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린이 문화 전반에 걸쳐서 이 좋은 계절을 선용하자면 행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 파고들도록 치밀하고 앞선 계획이 있어야 하겠고, 그래야 걸치레행사라는 인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우선 1년에 걸친 어린이 문화행사가 서로 연결되도록 미리 짜서, 도서관 같은 상설문화기관을 통해 사전공고돼야 한다. 5월 한달에 집중될수록 중복일이 많아 낭비되는 동기유발이 적지 않다. 또 외국처럼, 아니면 대학의 학사일정 표시달력처럼 1년 전에 행사일정이 잡혀지면 행사에 연계된 독서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아울러 좋은 책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권장도서구매의 동기자극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문화의 힘이 강해지지 않으면 그 공백을 '놀이문화'가 차지하게 된다.

미국에서는全美(全美)도서관협회 사서들이 추천하는 어린이 도서가 가장 권위 있는 추천도서로 대접되고 뉴욕타임스가 특별히 보도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영국·노르웨이에서도 그렇다. 프랑스에서는 텔레비전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주마다 교육방송국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 도서관 사서들이 권장하는 도서를 프로그램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인과 대학교수, 일선교사들이 삼위일체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 토론을 방송에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가 되었다고 본다. 모여서 주례사 같은 이야기만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효과분석을 정직하게 해봄직하다. 방학기간이 우리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방학이 끝날 무렵에 '책과 가까이 하라' 동기유발과 동기자극을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다.

출판문화협회에서 각국 대사관의 문정관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와 사례를 수집·연구해 볼 만한 선진국 문화의 단면이다. 권위 있는 신문이나 큰 방송국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감쪽지가 저절로 끊겨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일과 다르지 않다. 출판이나 도서의 유관단체들이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사례를 연구하여 보고서를 작성·첨부해가며 언론사 등에 요청해야 할 일이다. 매미가 허물을 벗으며 크는 그 아픔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

표지 인터뷰	2	《한국과학사의 새로운 이해》 펴낸 전상운 박사
기획 취재	4	첨단학술정보의 고속도로가 뚫린다 첨단학술정보센터' 5월부터 서비스
얼굴	4	제7회 애서가상 받은 전 내무부장관 이상희씨
특집/어린이 책, 어린이의 독서	6	어린이 독서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김병규/이주영/전영순/조정하
	8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연령별 시리즈 정착
	9	가상공간에서 만나는 어린이책의 세계
	10	어린이를 위한 작은도서관 어린이책 기획·집필집단
	11	'98블로나 아동도서전 참관기 - 정보경
	12	새로나온 어린이책
저자초대	14	《황동규 시전집》 펴낸 황동규 시인
	15	《금관의 비밀》 펴낸 김병모 교수
출판시평	16	영화와 철학, 어떻게 만날까 - 박정하
리뷰	17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불교의 교리
출판화제	18	고급만화 선도하는 새 주인공들 '1318' 세대를 위한 한자학습서
포럼	20	'서울출판인포럼' 초청 신현웅 차관과의 대화
가상 대담	22	현대의 언어사상 잉태시킨 소쉬르 - 김성도
만화	23	책과 오대리 - 박시백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4	한국문화의 뿌리 쫓은 인류학의 탐험길 - 이광규
책갈피 산책	25	김호석 지음 《스타시스템》을 읽고 - 변정수
해외 도서관 탐방	26	파리의 반담 어린이도서관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7	영국 '돌링 킨더슬리' 사 홈페이지 - 박광렬
서평	28	레제-웨퍼 《하버마스》 - 윤평중 김익수 외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 - 허재완 29 타다 토미오 《번역의 의미론》 - 이종찬
확대서평	30	《신한국군 리포트》 《선진국방의 지평》 - 지만원
기고	31	'도서관 통계' 기사의 몇가지 오류 - 이용훈
이 책 그 사람	32	《장강을 넘어 역사를 넘어》 펴낸 지용택씨 《마취과의사는 이름표가 없다》 펴낸 이관우씨 33 《우리는 자유로에서 다시 만났다》 펴낸 강영희씨 34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 육명심 《육명심》
		표지 사진/한준호